

buddhanews.com

모두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공해서

25면에서 계속

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 제 육신에 대한 일은 그렇게 주인공이 처리를 잘해 가면서 저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일은 그렇게 잘 안되는 건지 그걸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변의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치가 이렇게 참나참나 화해서 돌아가는 대로 헤아릴 수 없이 실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한량이라고. 그런데 막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요렇게도 생각하고 조렇게도 생각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즉시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한 거야. 아이, 무조건이 뭐가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오리 비꾸러지고 조리 비꾸러지느냐? 앞서 경전을 너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너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 무조건. 저 나무들이 뿌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종자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고, 싹이 있기 때문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그 광대한 이치를 어떻게 헤아리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데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 어느 신도가 말이야, 애틀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쌍둥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쌍둥이라는 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래. 두 달이 좀 넘었다던가 그랬는데, 석 달이 채 못 됐을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겁나서 애틀 쓰니까 내 생각에 '쌍둥이는 무슨 놈의 쌍둥이!' 그러곤 말았거든. 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낱을 달이 뺐는데, 낱을 달이 지나도 안 나와서 낱자가 돼서 병원에 가니까 거꾸로 싹도 그 그러더라는 거야. 또, 그래, 생각을 해 봐요. 돈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서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 망가질까 봐... 바로 세우는 데도 아주 크게 뭐가 잘못될 수도 있대요. 하여튼 몸에도 그렇고 좋지 않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소리 좀 봐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날더러 거꾸로 된 거 바로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 한마음선원에 대해 스님한테 가서 바로 서게 해 달라"고 그러라. 그러더라는 거야. (대중 웃음)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선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2-3일 후에 가서 검사해 봐!" 그랬다고. 그래 그 이틀날 가니까 "어! 바로 뺐네." 이러더라는 거야. 하하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똑같아요. 실천하는 건 똑같다고

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젠 너무 커서 사람으로서 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바로 거기서 다 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죄 받죠.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여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지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입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로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저렇

한 참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단 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주위의 사람 들에게는 왜 도움이 안되느냐는데, 그것은 돌로 보기 때문에 안되는 거야.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 쉽지, 왜? 이게 전력은 있되 가설이 안됐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거든. 내 전기를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그리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로 인해 서 저 사람이 잘돼야 할 텐데...'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불이 되지 않아? 들은 불의 전기를 줄이 있어 맞붙어서 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혜로써 해 나갈 수 있다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나가 돼 버리든지, 그거를

이 우리가 그러한 공부를 경험을 안 해 보면 모르기 때문에... 속가에서 살면서 그만큼 고통도 안 받고 그 공부를 할 줄 알고? 허허허... 욕심도 많다. 죽은 세상에 가 봐야 죽은 세상을 알지, 어떻게 알겠나?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죽은 세상 빨리 가보고 싶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가정의 달이라고 호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진정 스님한테 효도하는 길은 빨리 성불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돌로 보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공부 가 털 때서 그런 걸로 알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하고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그 보세. 내 몸뚱이는 내 몸뚱이가

이론으로만 알고 애쓰지 마시고 좀 미련한 듯하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경이로 뛰고 아는 것은 몽땅 다 주인공에다가 팽개쳐 버리세요

게 뻥이나 치고, 열도탕도않은 말을 하고 그런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조율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기도 이렇게 안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할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런 것이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 달라고 그럴 테냐?" 그리고 야단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마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허허허...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이...'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와 자가, 주인공과 자기와 돌아 날 때는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 그냥 천기가 되는 거야. 꼭 주인공 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둠이, 싹과 뿌리와 한데 붙었는데,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돼야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돼.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면서 회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끌어다가 나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관하는 것만 알려 주고 내 마음을 내 주면 불어써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해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어. 겁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는 데도 겁내지 말아야 된다. 오늘도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안 해 본 사람은 그 뜻을 모르지. 부처님께서 전법하실 때에, 뱀이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 대신 과일을 먹어라." 하고 과일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 앉아 계신 스님에게 "저건 뱀이 뱀이 아니냐고, 과일이 과일도 아니냐?" 이러었어. 왜냐하면 뱀은 길게 되면 한 일(-)이 되고, 동글리면 원이 되고, 대가리를 들면 흰 백(白)이 되거든. 백이 돼. 흰 백(白) 자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으면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웅이고 웅이고, 또 기다랗게 퍼졌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 원이 돼도 하나로 통치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일을 줄 때는 돌이 아님을 표시한 거고, 이것을 받아먹은 뱀은 돌이 아니게끔 알기 때문에 서로 받아먹은 거다 이거야. 이거는 과일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준 거고, 원심(圓心)을 준 거고 이쪽에도 원심으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는 없지. 그런 법이고 그런 공부죠. 우리가 산에 가 보지 않았으면 모르듯이, 음식을 먹어 보지 않았으면 맛을 모르듯

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의 집이죠. 그런데 그 생명들을 다스리는, 바로 자기 마음의 근본이 있거든요.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 믿는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해 줘야 될까? 진짜로 믿는다면요, 아무 의심도 없고요,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요 의심이 가지 않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 알아서 해라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이런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또 뭐라고 그랬죠? 두려운 거하고?

질문자(2남): 나를...

큰스님: 어, 내세운다. 믿지 못하니까 나를 내세우죠. 내가 몸속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물 한 컵을 마시되, (물을 마셔 보이시며) 지금 이 목이라든가 위에서 내려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부름 해 줘죠. 지금, 그런데 이 심부름을 해 주면 더불어 같이 먹는다고요. 일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나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나만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도.

질문자(2남):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천하기가 참 힘들어서...

큰스님: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애틀 쓰지 마세요. 좀 미련한 듯하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경이로 뛰고 아는 것은 몽땅 다, 주인공에다가 팽개쳐 버리세요. 팽개쳐 버리고 거기다가, '흥! 못났네 잘났네 내가 형성시켜서 내가 이끌고 가는데,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몽땅 거기다가 팽개쳐 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잠자기와 현재 자기가 상봉이 돼요. 이 상봉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

리 광대하다고 이렇게 얘길 해 줘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뿐인가? 돈오(頓悟)라는 거는 지금 내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봉을 해서 애틀... 어떻게 해야 쉽게 말을 하지? 상봉을 해서 인태를 해 가지고 어린이에 낳은 거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이에 어린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하는 거는 점수(漸修)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름이 돈오,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돈오와 점수가 들어 아니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선 돈수(頓修)라고 그러죠, 돈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돈수라고 그러다가, 또 이것이 다 넘어가면 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면 대학 나온 거는 다 없어지고 대학원 나온 것만 위로 남죠. 그거와 같이 구경에 이르러서 생각을 아주 다 탕탕 놔 버린 그런 상태가 돼야만 이 그때는 돈수나 열반이나 이런 이름도 붙지 않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두렵다거나 나를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내세울 게 없다는 결론이예요. 내 이 몸뚱이 하나가, 지금 하나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이 세계인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그래요? 이 지금 몸뚱이 속에 위공장이 있는가 하면 성대공장·식도공장·심장공장 또, 뇌장공장·이차공장·척추공장·척수공장·방광공장·콩팥공장 위 공장이 이거는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피부에 대한 문제, 핏줄에 대한 문제도 있죠. 이 거기에요 지금 핏줄이 있는 것을, 즉 법체라고 하고, 법체! 법마이라고도 해요.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핏줄이 한 몸뚱이를 전부 돌아다닐 수 있는 통신망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런 망이 없이는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모두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요. 공해서.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주인공은 속에서 하고 주인공 몸뚱이는, 즉 말하자면 시자는 뛰고요. 내가 간단하게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할 테니까 너는 뛰어라!" 이러셨다고요. 하하하... "나는 할 테니까 너는 뛰어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혜롭게 잘 이해를 하면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요. 또, 아니 되는 거는 '아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고요. 그렇게 하세요.

※위 법문은 1996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 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 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용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 넘게 얼굴생김새, 목소리, 체형, 성격을 본 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유전적인 병명, 현재 앓고 있는 병들을 만나는데로 알 수 있고 체질약차로 병을 고치는 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행운이 열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례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빙의 (귀신들린 병) 퇴마. 사주. 작명.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우울증, 귀신들린 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망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 전생요법, 우울증, 심리불안, 공황장애, 결벽증, 불면증, 다이어트, 금연.

공포증 (대인공포, 폐쇄공포, 고소공포, 남자공포, 여자공포, 물공포, 불공포)
학생상담 (집중력, 시험불안, 발표불안, 인터넷중독, 습관변화, 자신감고취)

빙의상담!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소리가 들리십니까? 잡것이 보입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족.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크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크.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